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Who do you think we are?

李光萬 / (주) 간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Kwang - Man

ESSAY

나는 건축계에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이제까지의 작업이 정리된 감각과 생각이 반영된 작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건축사이지만, 이 시대의 건축계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앞에서 잠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이지만 바쁜 실무중에도 학교 강단에서 설계강의를 통해 젊은 건축학도를 만날 기회가 있다. 하루는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 “건축가와 건축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갑자기 내 자신이 직업을 지칭하는 두단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라 하니 그 질문이 선문답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보통 ‘Architect’를 ‘건축가’로 이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는 ‘Architect’는 ‘Architect’인데 ‘Registered’라는 수식어를 갖는 건축가입니다”라고 서두를 시작하여 건축예술, 행정, 실무, 이상 운운하며 그 뉘앙스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래도 건축을 직업으로 택할 학생들이어서인지 수긍하는 눈치였지만 똑같은 설명을 일반 사람들 혹은 다른 분야 사람들에게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갖게 될지는 미지수였다. 건축사, 건축가라 불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에 대한 역할의 범위와 다른분야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감지하는 것은 스스로 자성의 기회도 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건축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도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실무를 시작하면서 잦은 야근과 철야, 적은 봉급, 시간만 있으면 건축이야기, 게다가 술자리라도 마련되면 마치 건축가가 된듯 건축을 논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일어 별을보며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나기도 한다. 지금의 나는 공인된 건축가(건축사)이지만 ‘건축가’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학교강의도 기웃거리게 하고 그래서 건축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픈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한다. 건축사면허 취득과 설계사무소 개설후 대외적으로 건축사라는 자부심에서만 출발한 생활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전문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스스로 평가가 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한동안은 계속해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존재 위기에 놓일 정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는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는 성격이 다른 분야의 사람이 참가하게 되어 서로의 협동체계를 갖추고 팀워크를 이루어 작품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 나름의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였지만 이러한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한편으로 나에게 큰 불만을 가져다 준 면도 있었다.

목적과 수단이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행정관료들에 의한 건축가로서의 좌절이 그 단면이다. 예를 들면 ○○은행 본점 설계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계획의 발표는 무르익은 설계과정을 벼랑끝에 서게하기도 하고, ○○제철 경영정보 센터의 경우는 갑작스런 ‘규모변경’에 따라 건축가의 많은 결정들을 일순간에 무용지물화 함으로서 건축가의 역할을 다시 뒤돌아 보게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매스컴에서는 신항주 대교 붕괴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고 있다. 부실시공인가, 감독관청의 감독소홀인가, 기술수준의 전문성 부족인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사고의 원인은 참여자 모두에게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그것이 우리시대의 건설 수준임을 인정하게 되고 부실행정의 표본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건축 분야에 생겼다면, 이 모두 부실시공, 건축사의 설계감리 소홀, 감독관청의 부실행정의 표본인 것처럼 보도될 것이고, 건축사를 죄인처럼 취급할 것이며, 그것도 ‘건축사’가 아닌 ‘건축설계사’라고 부르면서 모든 건축사가 공무원과 뇌물 수수 관련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할 것이다. 이런식의 여론은 건축사가 행정비리의 주체자로 인식되게 하여 급기야는 92년도 건축사 보수 교육시 정화대회, 결의문 채택 등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사실에 이르러서는 건축사라는 직업에 회의나 환멸같은 것을 느끼게 되어 뛰쳐나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러한 정신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어쩔 수 없이 순수한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한 개인자격을 건축가로서의 버릴 수 없는 욕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축계의 통합된 구조적인 노력의 배경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욕심에 충실하여 건전해 질 수 없다. 3단체(학회, 가협회, 사협회)로 구분되어 있는 우리 건축계는 각자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서로 토론하고 협력하는 구조적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이것은 바로 이상과 실제 그것과 같다. 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술가 편에 선 건축가가 되어, 마치 사회모순과 비리를 남의 일로만 느끼며 순수하게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축가’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적어도 우리 모두는 건축이라는 한 배를 함께 저어가는 같은 선원임을 새삼스레 생각해본다.

내가 아닌 우리의 개념에서, 건물을 설계하는 좁은 의미의 건축가가 아닌, 건축적 이상이 추구되어진 건물(건축)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로서의 사고의 연장에서 조성되는 전반적인 우리 건축문화의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건축사, 건축가, 건축학자의 상호 신뢰가 성립되고 한 울타리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협력할때, 비로소 서로의 비판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훌륭한 건축유산을 후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에서 오래 하게되는 각종 심의, 자문위원회 등의 메카니즘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건축사의 역할이 건축가로서 인정되어야 할 절대적인 부분이 대규모 체제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신당하고, 건축이외의 문제 - 인간관계, 사회적 관례, 행정적 절차 - 때문에 야기되는 사무적인 협동이라는 행정업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극도로 싫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팀과의 협동작업을 하던중에 법규해석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여 허가당국에 제시할 수 있었던 사실은 나에게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면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 또는 법규 모순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최근 법규의 설비분야에서 규정하는 배연창의 설치 고층 건물에서 배연창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 외부의 신선한 공기유입이 화재를 촉진시킨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화재학회와 방재 전문가로 구성되어 작성된 계획서가 건설부 질의 회신을 통과하여 천장 매연설비, 아트리움의 층간 방화구획에 대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쁜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건축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여기서 나는 거듭해서 건축사들의 업무를 저해하는 각종 심의 제도가 건축문화에 얼마만큼 발전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에 의심을 갖게된다. 건축 계획 심의는 어떠한가? 이는 건축사들의 고유업무에 대해 행정가들의 편의적 책임전가에 의해 생겨난 제도이며, 이에 편승하여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많은 시간의 가능성 검토와 노력의 결과를 단 몇분의 시간을 통하여 “조형적 처리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입면 비례가 나쁘다”, “동선 처리가 나쁘다”는 등의 평가에 머무르게 되는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행정지침이 주관적 평가라는 인상을 갖게한다.

또한 현실의 교통영향평가는 무엇을 의미하나? 법적 주차대수이외에 추가 주차대수를 25%까지 심하게는 50%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기준 등의 심의 위원 편의에 따라 정하는 규정을 우리의 건축사들은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 이렇듯 건축이 갖고있는 주관성과 독창성을 무시하는 제도의 운영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테두리 속에서 긍정적 사고를 갖고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건축문화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되는 때에 부정적 측면만 도출하는 심의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일까? 아직도 심의 제도는 법적 권익을 앞세워 건축의 창의성 보다 행정편의적 지도를 일관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주위에는 건축사의 면허자체를 부정하고 예술적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건축가와 교수들도 있다. 또한 건축계 주변에 교통, 설비, 조정 관련 학과 교수들도 있는데, 이들은 각종 심의, 현상설계 심사시 건축가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며 마치 건축가의 위에 서서 활동하며 건축사를 업자 정도로 취급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는 건축가(건축사)가 해야 할 업무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예술가 편에선 건축가가 되어 마치 사회 모순과 비리를 남의 일로만 느끼며 순수하게 자신의 영향력만으로 사회 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축가’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도 적어도 우리 모두는 건축이라는 한 배를 저어가는 같은 선원임을 새삼스레 생각해 본다.

이상은 나의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었다. 건축분야의 출발은 건물을 실체화하여 이야기 거리를 만드는 ‘건축가’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출발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되는 직업인인가? 나는 ‘건축가’인가 ‘건축사’인가. ‘건축가’와 ‘건축사’의 차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이것은 ‘건물은 무엇이고 건축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서와 같은 구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실제와 이상이 그것이다. 건물을 설계하는 좁은 의미의 건축가(Registered Architect)에서 건축적 이상이 추구되어진 건물(건축)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로서의 사고의 연장에서 조성되는 전반적인 우리 건축문화의 분위기가 되길 바란다. 건축은 어느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 지지 않는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에서 풀어야 할 지속적인 숙제 일 것이다.